

한국 청소년의 에이즈감염 실태 및 예방

고운영 | 예방의학 전문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예방의학 전문의 취득
국립보건원 보건연구원

청소년과 성병/에이즈(제3회)

청소년과 성병/에이즈관련은 연재기획으로 5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향후 연재될 주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위험요인

제2회: 청소년의 성의식

제4회: 청소년의 성/에이즈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제5회: 외국의 청소년 성병/에이즈예방교육

올해로 미국에서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최초 보고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2000년 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3천6백7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이중 3천4백70만 명이 성인으로 여성감염자는 1천6백4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2000년 한해동안 전세계적으로 3백만 명이 에이즈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이중 여성은 1백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UNAIDS에서는 최근 여성 감염자의 증가가 두드러진 추세라고 하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3천4백70만 명 중 47%인 1천6백40만 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20년의 기간 동안 에이즈 감염은 전세계적으로 조기사망, 가족의 붕괴, 에이즈에 감염된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발생한 고아문제, 수직감염에 의해 발생한 소아 감염자 등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산성 저하, 치료에 드는 경비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1981년 최초 에이즈환자 발견 시 만해도 그 누구도 에이즈의 이러한 보건학적, 사회 경제적 파괴력을 예측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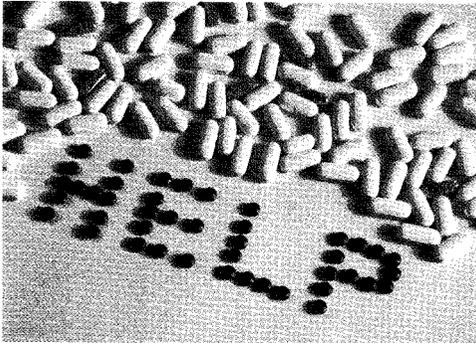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에이즈감염은 더 이상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일부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에이즈감염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립보건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의 HIV총감염자 수가 2001년 3월말 현재 1,350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94~98년)의 신규 감염자의 년 평균 증가율은 12.8%수준이었으나 1999년도는 전년대비 44.2%, 2000년도는 17.7%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70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었고, 감염자 1,350명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감염경로가 확인된 1,152명중 1,110명(96%)이 성접촉에 의한 것이다. 수직감염자는 2명으로 확인되었고 감염경로 중 마약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명(남자) 확인되었으며, 감염자 중 10대 감염자로 남자 2명(고교생1, 대학생1) 새롭게 발견되었다. 90년대 후반 들어 10대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는 성관계들 통해서 감염될 것이다. 성관계를 통하여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은 1회의 성접촉당 0.01~1.0%로 보고되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가 이성간 성관계보다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의 전파가 여성으로부터 남성으로의 전파보다 전파확률이 더 높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에이즈 감염율이 0.01% 이하로 낮은 나라로 분류되며 일반인구로의 확산이 광범위하지 않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성접촉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가 필요하다.

에이즈 전문가들은 '반약 당신이 최근에 윤락여성 등 불특정 이성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신은 그 동안 그 상대자가 성관계를 가졌던 모든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에이즈 감염은 현재까지도 한번 감염되면 완치되지 않고 평생 감염력을 지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번의 성관계라 할 지라도 상대방이 다수의 성상대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상대방이 지금까지의 성관계에서 갖는 에이즈 감염의 확률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사이 사회분제가 되고 있는 원조교제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40대, 50대, 10대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10대의 청소년이 20대 이후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연령이 많은 상대방 남성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에이즈 감염의 위험이 높게 된다.

남자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윤락여성 등 에이즈 감염의 고위험군과 성관계 시 그 동안 그들이 성관계하였던 모든 사람과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에이즈 감염율이 0.01% 이하로 낮은 나라로 분류되며 일반인구로의 확산이 광범위하지 않다. 그러나 에이즈 감염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성접촉을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성관계 파트너를 자주 바꾸는 경우, 한명 이상의 성관계 파트너가 있는 경우, 윤락여성 등 불특정다수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 지난 해에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이다.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피하고 콘돔을 사용하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청소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원조교제와 청소년들이 윤락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등 매우 위험한 행태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